

아동이 지각한 부부갈등과 또래관계가

아동의 자기유능감에 미치는 영향*

: 다문화가정 아동과 일반가정 아동 비교

Influence of Children's Perception of Interparental Conflict and Peer Relationship on Children's Self Competence

: Comparison of Children from Multicultural Families and Korean Families

경북대학교 아동가족학과

박사과정 안 선 정**

경북대학교 아동가족학과 · 장수생활과학연구소

조 교 수 임 지 영***

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 생활과학연구소

조 교 수 Grace H. Chung

Dept. of Child and Family Studies, Kyungpook National Univ.

Doctoral Course : An, Sun-Jung

Dept. of Child and Family Studies · CBA(Center for Beautiful Aging), Kyungpook National Univ.

Assistant Professor : Lim, Ji-Young

Dept. of Child Development and Family Studies · Research Institute of Human Ecology, Seoul National Univ.

Assistant Professor : Chung, Grace H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difference in self competence between children from multicultural families and children from Korean families, and to study how interparental conflict and peer relationship influence the self competence of children. The subjects of the present study were 138 children of multicultural families and 254 children of Korean families in the 3rd or 4th grade in Seoul, Daegu, Gyeong-gi province, and Gyeong-buk province. The instruments of measurement were the Children's Perception of Interparental Conflict, Friendship and the Perceived Competence Scale for Children. Data were analyzed by independent samples T-test, MANCOVA, ANCOVA and multiple regression using the SPSS program. The results showed there was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self competence of children between those from multicultural families and those from Korean families, but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when income was controlled. Second, for children of multicultural families, gender, income, and the intensity of interparental conflict had significant influence on self competence while gender, aid, conflict, and disclosure of negative affect in friendship, and being a peacemaker in interparental conflict influenced self competence significantly in the case of children of Korean families.

▲주요어(Key Words) : 다문화가정 아동(children from multicultural families), 부부갈등(interparental conflict), 또래관계(peer relationship), 자기유능감(self competence)

* 이 논문은 경북대학교(임지영) 및 서울대학교(Grace H. Chung) 신입교수 정착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주 저 자 : 안선정 (E-mail : onlysally@hanmail.net)

*** 교신저자 : 임지영 (E-mail : limj@knu.ac.kr)

I. 서론

한국은 지난 10년 동안 결혼이민자가정, 외국인노동자 가정 등의 증가로 인하여 급격히 다인종·다문화(multiracial and multicultural)사회로 변하고 있다. 행정안전부(2010)의 통계 자료에 의하면 결혼이민자 가정 및 혼인귀화자는 약 181,671명으로 전체 외국인 주민의 15.9%에 해당하며, 결혼이민자가정 등이 증가함에 따라 그들의 자녀도, 2007년 4만 4천명, 2008년에는 5만 8천명, 2009년 10만 8천명으로 매년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6세 이하의 자녀가 62.1%, 12세 이하가 25.1%로, 초등학교 이하의 유·아동이 전체의 87.2%를 차지한다. 또한 외국인노동자 자녀, 국제결혼 재혼가정 자녀 및 난민가정의 자녀도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다문화가정 아동의 수는 더욱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다문화가정 아동에 대한 연구도 아동발달 전 영역에 걸쳐 다양한 각도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다문화가정 아동과 일반가정 아동과의 비교연구(Lee, 2007; Jeon, 2008; An & Lee, 2009; Lee, 2009; Nam, 2009; Park & Lee, 2009; Kim, 2010; Yoo, 2010)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 국내에서 수행된 연구들(Cho, 2006; Oh, 2006; Yang, 2006; Park & Kim, 2007; Koo, 2009; Lee, Seo & Kim, 2009)에 의하면 다문화가정은 한국의 전통적인 단일 민족정서에 따른 인종적 편견, 부부 간 의사소통상의 어려움, 이주 부모의 한국문화 적응에서의 어려움, 낮은 사회·경제적 수준 등 이들 가족이 갖고 있는 문제들로 우리사회에서 적응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 다문화가정 아동의 경우 부부 간의 갈등을 지각할 가능성이 높고, 이는 다문화가정 부모의 부모효능감이나 양육행동에 반영되며 이것이 자녀와의 애착, 자아존중감, 또래관계와 같은 사회·정서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다문화가정의 자녀들도 외모가 다르므로 인해 사회적 편견에 시달리고 이들 가정이 갖고 있는 언어, 문화, 경제적 문제에서 비롯된 제반 여건들에 의해 원만한 성장과 발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또래관계에 있어서도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경상북도 보육정보센터(2009)의 조사 결과에서는 앞서 언급된 바와 같이 다문화가정 자녀가 겪는 여러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상당수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발달상황은 일반 가정 유아들과 비교해볼 때 매우 심각한 부적응이나 지체 상황에 있는 것은 아님을 밝히고 있다. Park and Lee(2009)는 다문화가정 학생들이 일반가정 학생들에 비해 학교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더 높고 교사와의 관계에 대해 더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하였고, Jeon(2008)은 경기도 지역의 다문화가정과 일반가정 청소년의 생활실

태를 비교한 결과 전반적인 만족도는 다문화청소년이 일반 청소년보다 높다고 하였다. 또한, 다문화가정과 일반가정 아동 간의 자아존중감을 비교한 Yoo(2010)의 연구에서도 일반 가정 아동의 자아존중감이 다문화가정 아동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현재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성장과 발달 과정을 논의 하는데 있어 그 자녀들이 갖고 있는 여러 문제적 상황이나 어려움을 추론하는 것만으로 아이들의 발달이 많이 지체된 것으로 예측하고 판단하는 것은 편협된 사고에 의한 것일 수 있다(Lee, Seo, & Kim, 2009). 따라서 다문화가정 아동이 일반가정 아동에 비해 모든 발달 영역에서 문제점을 가지는 것은 아님을 알 수 있고,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가정 아동과 일반가정 아동의 비교연구를 통해 다문화가정 아동에 대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발달상황을 알아보고자 한다.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 위한 하나의 요소인 유능감은 자아존중감, 자아평가, 자아가치감 등의 자아에 대한 평가척도로서, 한 인간의 발달적 변화에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며 개인의 정신건강에서 중추가 되는 요인으로 널리 인정되어 온 변인이며(Park, 2003), 아동이 생후 최초의 관계를 형성하여 가장 오랜 기간 동안 많은 접촉을 하게 되는 어머니는 아동의 유능감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환경적 변인이라 할 수 있다(Seo & Kim, 2004). 특히, 자기유능감은 자아에 대한 평가와 감정의 요소를 포함하여 스스로 자신이 지녔다고 생각하는 특성에 대한 개인적인 느낌이나 판단을 의미한다(Harter, 1982). Jeon(1992)은 자기유능감을 개인이 자신의 능력적 수행을 스스로 평가하는 자기평가과정 즉, 생의 각각 상이한 영역을 다루어내는 자신의 능력을 스스로 지각하는 것으로 정의하였으며, Lee(1995)는 자신의 학업, 사회, 운동, 신체, 품행을 효과적으로 다루고 수행하는 능력에 대한 아동 자신의 지각이나 평가라고 하였다.

Harter(1985)는 8세 이상의 아동은 서로 다른 영역(학업, 사회, 신체, 운동, 품행)에서 자신의 유능감에 대한 판단을 할 뿐 아니라 특수한 유능감에 대한 판단을 넘어서 한 인간으로서 자아 가치에 대한 견해를 구축할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아동의 유능감은 아동의 성별, 연령, 성패 귀인 등 개인적 변인 뿐 아니라 부모 및 또래집단과의 상호작용 등 환경적 변인의 영향을 받으며 발달한다고 알려지고 있다(Seo & Kim, 2004). 즉, 자기유능감은 아동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환경과의 상호작용 특히 부모, 형제 및 또래 등 중요한 타인과의 상호작용에 의해 발달되며 이러한 상호작용을 통해 자신의 능력에 대해 지각하고 평가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아동이 자신을 평가하고 자기유능감을 형성하는데 있어 부모와 또래의 영향이 중요하다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다.

그러나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경우에는 의사소통과 한국 문화 적응의 어려움, 낮은 사회·경제적 수준 등으로 인해

심한 심리·정서적 문제를 가질 수 있으며 이는 부부갈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Kim(2006)의 연구에서도 한국여성과 비교해 볼 때 결혼이민여성의 부부갈등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하였고, 국제결혼 가정의 부부갈등 요인에 관한 연구(Lee, 1999)에서도 경제수준과 교육수준이 낮은 경우 부부갈등은 높게 나타났다고 보고하였다.

부부갈등이란 부부 간 욕구의 상충, 목표 및 기대의 불일치를 의미하며(Davis & Cummings, 1994), 부부가 서로의 대립과 불일치를 해결하기 위해 교환하는 관찰가능한 부정적인 언어적, 비언어적 상호작용으로 정의 할 수 있다(Grych, Seid & Fincham, 1992). 이러한 부부갈등은 가족 내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상황으로 정상적인 가정생활의 일부분이라고 할 수 있으나, 이러한 상황에 노출되는 아동은 부모 간의 불화에 매우 민감해져 자신의 의도와 상관없이 피해를 입거나 실질적인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Grych & Fincham, 1990). Vandewater and Lansford(1998)는 '부부 간의 갈등(inter-parental conflict)'이 아동문제의 주된 원인이라고 밝히고 있으며, 이러한 부부 간의 갈등은 아동의 사회적 유능성(Emery & O'Leary, 1984), 인지적 유능성(Long et al., 1987), 학업성취도(Westerman & La Luz, 1995)에도 영향을 미친다. Aderson et al.(1983)은 부모의 부부갈등은 초등학교 자녀에게 심리적으로 중요하게 작용을 하는데 자녀가 성장함에 따라 더 많은 심리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밝혔다. 특히, 갈등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에서 부부가 보고하는 갈등 보다는 아동이 주관적으로 지각하는 부부 간 갈등이 아동에게 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Grych & Fincham, 1990), 아동발달을 예측하는 더욱 중요한 변인이라는 연구결과(Vandewater & Lansford, 1998)가 보고되면서 아동이 지각하는 부부 간 갈등이 중요한 변인으로 인식되었다. 이와 같이 부부갈등은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부부갈등은 그 하위요인에 따라 아동에 대한 영향이 달라질 수 있는데 부부갈등의 빈도가 잦을수록 아동들은 더 많은 스트레스, 분노, 불안함을 경험하며 공격성이 증가한다(Cummings, 1994). 또한 아동들은 신체적 폭력을 수반하는 갈등에 대해 더 분노를 느끼고(Cummings, Ballard, & El-Sheikh, 1991), 정서적 행동문제를 더 많이 나타내며, 부부갈등의 내용에 아동이 관련되어 있을수록 더욱 심각한 부적응 문제를 발생시킨다(Emery, 1982). 부부가 심하게 싸울수록 자녀는 내면적으로 많은 상처를 받으며(Kim, 1994), 부부 갈등에 자주 노출되고 강도가 심할수록 공격성 등 아동의 문제행동은 증가한다(Jung, 2000; No, 2001). 또한, 여러 연구(Yoo, 2000; Park, 2001; Park, 2003)에서 부부의 갈등은 아동의 부정적인 자아 개념 형성과 우울감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Kwon(1998)의 연구에서는 부부 간의 갈등빈도,

강도, 해결정도는 아동의 외현화 문제와 관계가 있고, 부부 간의 갈등에서 느끼는 위협과 자기비난은 아동의 내재화 문제와 관계가 있다고 밝히고 있어 부부 간 갈등 유형에 따른 아동행동에 대한 영향이 달라질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아동이 지각하는 부부갈등은 아동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아동의 자기유능감 형성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예측할 수 있으며, 특히 다문화가정 아동의 경우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일반가정 아동에 비해 부부 간 갈등을 지각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아동의 유능감과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아동의 유능감과 가정환경 및 부모 양육태도와 관련시켜 본 연구들(Lee, 1995; Choi, 2004; Hwang, 2007)은 몇 편에 불과하며 아동이 지각한 부부갈등과 자기유능감과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Park, 2003)도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일반가정 아동을 비교집단으로 하여 다문화가정 아동이 지각하는 부부 간 갈등이 아동의 자기유능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한편, 초등학교 시기는 가정의 울타리를 벗어나 사회적 관계가 확대되며 또래에게 수용 받고 원만한 관계를 형성하는 경험을 통해 자신의 가치를 판단하게 되는데 이러한 또래관계는 아동의 성격 형성과 향후 성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Hwang & Go, 2010). 다시 말해, 아동들은 또래관계를 통해 사회성 발달에 긍정적 효과를 얻고 타인과의 원만한 상호작용 속에서 관대함과 이해력을 발달시키는 등 사회적 기술을 획득하는 기회를 얻는다고 할 수 있다.

Harter(1985)는 아동기는 '또래 시기'라고 할 만큼 또래들과의 관계가 아동들의 생활에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강조하였다. Parker and Asher(1987)는 또래관계가 원만한 아동은 심리적으로 건강하고 적응을 잘하는 반면에, 또래로부터 거부당하는 아동은 현재와 이후에 사회적 부적응을 나타낼 위험성이 높다고 하였다. 아동은 또래집단에서의 안정을 통하여 심리적 안정을 키우게 되고 또래관계에 만족할수록 자신이 사회적으로 수용된다고 지각하고 자신의 행동과 외모, 가치를 긍정적으로 지각하게 된다. 또한, 또래와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목표나 가치를 공유하며 친밀감의 욕구를 충족시키며 학교, 가정에서 얻을 수 없는 자아에 대한 인식과 발달기회를 가진다고 보고하였다(Seo, 2004). 또한, Bukowski and Hoza(1989)는 아동기에는 부모의 평가보다 또래들로부터의 평가가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또래집단으로부터 수용되고 인정받음으로써 부모가 제공할 수 없는 정서적 안정감과 긍정적인 자아개념을 형성하게 된다고 하였다.

그러나 다문화가정 아동은 편견이나 따돌림으로 인해 부적절한 또래관계를 형성할 가능성이 크고, 이는 심리사회적 적응 및 생활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Oh(2005)의 연구를 살펴보면, 같은 반 친구들의 폐쇄적인 태도로 따

돌림을 당하거나 놀림대상이 된 다문화가정 아동은 친구들과 말하기를 꺼려하거나 어울리기를 싫어하는 등 부적응현상을 보였다고 하였고, Lee(2007)는 다문화가족 자녀의 사회적응은 교사, 친구의 폭행이나 따돌림, 폭력이나 비행등의 사회 환경 경험이 더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밝혔다. Park and Lee(2009)는 다문화가정 아동들은 일반가정 아동들에 비해 교우관계 형성에 더 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고 하였으며, 외모의 차이와 어머니가 외국출신이라는 이유로 인한 또래들과의 부정적인 관계형성이 학교적응의 어려움과 정체감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 (Hong, 2007; Kim, 2007). 또한, 생김새나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을 받거나 집단따돌림을 당하는 등 학교적응과 또래관계 형성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 2005; Cho, 2006; Shin, 2006). 아동들은 또래 관계를 통해 사회성 발달에 긍정적 효과를 얻고 타인과의 원만한 상호작용 속에서 관대함과 이해력을 발달시키는 등 사회적 기술을 획득하는 기회를 얻는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아동기 또래관계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다문화가정 아동은 또래간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통한 자아에 대한 인식과 발달의 기회를 제공받을 가능성이 낮으며, 이는 자기유능감 형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예측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다문화가정 아동은 일반가정 아동에 비해 부모간의 갈등을 지각할 가능성이 높고 또래관계에서도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있으며 이것으로 인해 그들의 자기유능감 형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예측할 수 있다. 그

러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다문화가정 아동이 일반가정 아동에 비해 모든 발달영역에서 문제점을 가지는 것은 아니므로(Jeon, 2008; Park & Lee, 2009; Yoo, 2010), 아동이 지각한 부모갈등, 또래관계 및 자기유능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족수입(Park & Cho, 2006)을 통제하여 다문화가정 아동과 일반가정 아동을 비교함으로써 다문화가정 아동에 대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발달상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처럼 다문화가정 아동의 자기유능감 형성에 있어 부모와 또래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이 두 가지 변인을 모두 살펴 본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특히, 다문화가정 아동이 지각한 부모갈등과 또래관계가 아동의 자기유능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며, 일반가정 아동과의 비교 연구의 필요성도 제기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가정 아동과 일반가정 아동의 자기유능감의 차이를 살펴본 후, 일반가정 아동을 비교집단으로 하여 다문화가정의 아동이 지각한 부모갈등 관련변인들과 또래관계 관련변인들이 아동의 자기유능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아동이 지각하는 부모갈등과 또래관계가 아동의 자기유능감을 설명하는 주요변인임을 확인하고, 다문화가정 아동과 일반가정 아동과의 비교를 통해 다문화가정 아동의 특성과 차이점을 파악하여 그들의 자기유능감 향상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위와 같은 연구목적에 따라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Table 1. Demographics and Children Characteristics

N=392

Variables		Multicultural Children n(%)	Korean Children n(%)
Gender	Girl	76(55.1)	125(49.2)
	Boy	62(44.9)	129(50.8)
Birth Order	First	52(37.7)	109(42.8)
	Second	49(35.5)	84(33.1)
	Third	13(9.4)	23(9.1)
	Forth	4(2.9)	1(.4)
	Only Child	17(12.3)	36(14.2)
	NA	3(2.2)	1(.4)
Income (Won)	Below 24,000,000	26(18.8)	19(7.5)
	24,000,000~74,000,000	18(13.0)	67(26.4)
	Above 74,000,000	1(.7)	5(2.0)
	NA	93(67.4)	163(64.2)
Age		M(SD)	M(SD)
		9.22(.99)	9.45(1.32)

- <연구문제 1> 다문화가정 아동과 일반가정 아동이 지각하는 부부갈등, 또래관계 및 자기유능감에 차이가 있는가?
- <연구문제 2> 다문화가정 아동이 지각하는 부부갈등과 또래관계가 아동의 자기유능감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 <연구문제 3> 일반가정 아동이 지각하는 부부갈등과 또래관계가 아동의 자기유능감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연구대상은 서울·경기 지역과 대구·경북 지역의 초등학교 3, 4학년에 재학 중인 다문화가정 아동 138명과 일반가정 아동 254명으로 총 392명이였다. 자기유능감은 학령기에 발달되는 중요한 적응능력이므로(Gwak et al., 2000) 학령기 아동을 본 연구의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다문화가정 아동은 여아가 76명(55.1%), 남아가 62명(44.9%)이었으며, 일반가정 아동은 여아가 125명(49.2%), 남아가 129명(50.8%)으로 나타나 성별이 적절히 분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문화가정 아동의 경우 첫째가 52명(37.7%)으로 가장 많았고, 일반가정 아동의 경우에도 첫째가 109명(42.9%)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문화가정 아동의 평균연령은 만 9.22세, 일반가정 아동의 평균연령은 만 9.45세로 나타났다. 어머니가 보고한 가족수입의 경우 다문화가정은 2,400만원 이하가 26가구(18.8%)로 가장 많았고, 일반가정은 2,400만원에서 7,400만원 미만인 가구가 67가구(26.4%)로 가장 많았다.

2. 측정도구

1) 부부갈등

아동이 지각한 부부갈등을 측정하기 위해 The Children's Perception of Interparental Conflict(CPIC; Grych et al., 1992)를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CPIC는 부부갈등 강도(예, 나의 아버지는 어머니와 말다툼을 할 때 물건을 부수거나 던진다), 부부갈등 빈도(예, 나는 나의 부모님이 말다툼 하는 것을 종종 본다), 부부 간 갈등을 해결하지 못함(예, 나의 부모님은 말다툼이 끝난 후에도 서로에게 화를 낸다), 부부 간 갈등으로 인한 자기비난(예, 나의 부모님은 말다툼 할 때 나를 비난한다), 부부 간 갈등 내용이 자신임(예, 부모님은 내가 했던 행동에 관해 말다툼을 한다), 부부 간 갈등에서 삼각관계에 있음(예, 부모님의 말다툼을 할 때 나는 어머니 편을

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부부 간 갈등에서 피스메이커 역할 함(예, 나는 부모님의 말다툼을 멈추게 하려고 노력한다), 부부 간 갈등에서 위협을 느낌(예, 부모님이 싸울 때 나는 겁이 난다)등 8개의 하위척도로 구성되며, 5점 Likert 척도로 측정되었다. 이전연구에서는 아동이 지각한 부부갈등을 4영역으로 구분하여 측정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하위척도 중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있는 척도를 제외한 5개의 하위척도로 측정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하위척도별 신뢰도 계수(Cronbach α)는 부부갈등 강도가 .71, 부부 간 갈등을 해결하지 못함이 .61, 부부 간 갈등에서 삼각관계에 있음이 .82, 부부 간 갈등에서 피스메이커 역할 함이 .83, 부부 간 갈등에서 위협을 느낌이 .88로 나타났다.

2) 또래관계

또래관계를 평가하기 위하여 Friendship(Ladd, Kochenderfer, & Coleman, 1996)을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이것은 또래관계 확인(예, 00는 내가 자신의 친구라고 말한다), 또래 도움(예, 만약 어떤 아이가 내 물건을 가져가면, 00는 그 아이에게 그것을 되돌려 달라고 말한다), 또래 갈등(예, 00는 나를 놀린다), 또래관계에서의 특별함(예, 00는 우리 반의 다른 친구들보다 나를 더 좋아한다), 또래 간 부정적 정서 공유(예, 나는 00와 나의 슬픈 일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다)등 5개의 하위척도로 구성되며, 5점 Likert 척도로 측정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5개의 하위척도 중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있는 척도를 제외한 3개의 하위척도로 또래관계를 측정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하위척도별 신뢰도 계수(Cronbach α)는 또래의 도움을 받음이 .76, 또래 갈등이 .43, 또래 간 부정적 정서 공유가 .71로 나타났다. 또래갈등의 신뢰도가 다소 낮게 나타났다. 아동의 또래관계를 측정하기 위해 필요한 하위요인이며 다른 선행연구들(Ladd, Kochenderfer, & Coleman, 1996; Yoo, 1999; Park, 2005; Lee, 2009)에서도 널리 사용되는 척도이므로 해석상 주의를 기울인다면 사용하는데 별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3) 자기유능감

아동의 자기유능감을 평가하기 위하여 Harter(1982)의 자기능력 지각 척도(The Perceived Competence Scale for Children)를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이것은 인지적 유능감(예, 나는 성적이 좋다), 사회적 유능감(예, 나는 친구가 많다), 신체적 유능감(예, 나는 모든 운동을 잘한다), 일반적 자아 가치감(예, 나는 나 자신을 믿는다)등 4개의 하위척도로 구성되며, 5점 Likert 척도로 측정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자기유능감의 전체점수를 사용하였고, 전체문항의 신뢰도 계수(Cronbach α)는 .95로 나타났다.

3. 연구절차 및 자료분석

본 조사에 앞서 질문지의 문항 이해도와 작성에 소요되는 시간, 질문지에 응답하는 방식에서의 문제점, 척도의 신뢰도를 알아보기 위해 2010년 3월에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예비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질문지의 내용을 수정·보완한 후 완성된 질문지를 2010년 5월에 서울·경기 지역과 대구·경북 지역의 초등학교 3, 4학년에 재학 중인 다문화가정 아동과 일반가정 아동을 대상으로 질문지를 배부·회수하였다. 본 조사에서는 대상자인 아동과 그들의 어머니에게 질문지를 배부하기 위해 서울·경기 지역과 대구·경북 지역의 초등학교와 지역 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 안내문과 함께 질문지를 전달하였다. 작성이 완료된 질문지는 연구자가 직접 회수하거나 학교 학급의 담임교사나 센터의 담당자에게 질문지의 목적을 설명하고 회수하도록 부탁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18.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첫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등 빈도 분석과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둘째, 다문화가정 아동 및 일반가정 아동의 부모 간 갈등지각 및 또래관계와 자기유능감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독립표본 t검증과 다변량 공분산분석 및 공변량분산분석을 실시하였고 셋째, 다문화가정 및 일반가정 아동이 지각한 부모갈등과 또래관계가 아동의 자기유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중다 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III. 연구 결과

1. 다문화가정 아동과 일반가정 아동의 부모 간 갈등지각, 또래관계 및 자기유능감 간의 차이

다문화가정 아동과 일반가정 아동이 지각한 부모갈등과 또래관계 및 자기유능감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독립표본 t검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2>에 제시되어 있다.

<Table 2>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부모갈등의 경우 갈등강도, 갈등을 해결하지 못함, 삼각관계에 있음에서 다문화가정 아동(M=1.948, SD=.578; M=2.512, SD=.885; M=2.078, SD=.819)이 일반가정 아동(M=1.659, SD=.571; M=2.023, SD=.821; M=1.848, SD=.881)보다 높게 나타났다. 또래관계의 경우 또래갈등은 다문화가정 아동(M=2.315, SD=.828)이 일반가정 아동(M=1.966, SD=.625)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부정적 정서공유는 일반가정 아동(M=2.918, SD=1.244)이 다문화가정 아동(M=2.641, SD=1.199)보다 높았다. 다문화가정 아동의 자기유능감(M=3.267, SD=.724)은 일반가정 아동의 자기유능감(M=3.555, SD=.731)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아동이 지각한 부모갈등, 또래관계 및 자기유능감은 사회경제적 상황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변인이며, Park and Cho(2006)의 연구에서도 저소득층 아동의 경제적 빈곤은 물리적·심리적 성장환경의 결핍을 초래하여 사회적 유능감의 결여로 이어질 수 있다고

Table 2. Mean and Standard Deviations of Study Variables

N=392

	Multicultural Children (n=138)	Korean Children (n=254)	t
	M(SD)	M(SD)	
Interparental Conflict			
Intensity	1.948(.578)	1.659(.571)	-4.649***
Resolution	2.512(.885)	2.023(.821)	-5.319***
Triangulation	2.078(.819)	1.848(.881)	-2.464*
Peacemaker	2.657(1.101)	2.885(1.186)	1.798
Perceived Threat	2.911(1.427)	2.877(1.395)	-.222
Peer Relationship			
Aid	3.144(.970)	3.345(.969)	1.952
Conflict	2.315(.828)	1.966(.625)	-4.328***
Disclosing negative affect	2.641(1.199)	2.918(1.244)	2.132*
Self Competence	3.267(.724)	3.555(.731)	-3.716***

* $p < .05$, *** $p < .001$

Table 3. Multivariate Analysis of Covariance for Interparental Conflict and Peer Relationship

			Wilks' λ	SS	df	MS	F
Interparental Conflict	Income	Intensity		2.032	1	2.032	5.559*
		Resolution		1.770	1	1.770	2.597
		Triangulation	.938	.364	1	.364	.442
		Peacemaker		.240	1	.240	.167
		Perceived Threat		6.229	1	6.229	3.322
	Group	Intensity		.253	1	.253	.693
		Resolution		1.693	1	1.693	2.484
		Triangulation	.977	.648	1	.648	.786
		Peacemaker		.561	1	.561	.392
		Perceived Threat		.040	1	.040	.021
Peer Relationship	Income	Aid		1.613	1	1.613	1.835
		Conflict	.970	1.558	1	1.558	2.774
		Disclosing negative affect		.551	1	.551	.392
	Group	Aid		.387	1	.387	.440
		Conflict	.985	.713	1	.713	1.269
	Disclosing negative affect		.001	1	.001	.001	

* $p < .05$

Table 4. Analysis of Covariance for Self Competence

	SS	df	MS	F
Income	6.508	1	6.508	13.134***
Group	.046	1	.046	.094
Error	65.898	133	.495	

*** $p < .001$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가 보고한 가족수입을 통제 한 후, 다시 다변량공분산분석 및 공변량분산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분석한 결과는 <Table 3>과 <Table 4>에 제시되어 있다.

<Table 3>에 나타난 바와 같이 가족수입을 통제 한 후 다변량공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다문화가정 및 일반가정 아동이 지각한 부부갈등(Wilks' λ=.977)과 또래관계(Wilks' λ=.985)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부부갈등의 경우 갈등강도($F=6.93, ns$), 갈등을 해결하지 못함($F=2.484, ns$), 삼각관계에 있음($F=.786, ns$), 피스메이커 역할을 함($F=.392, ns$), 지각된 위협($F=.021, ns$)에서 다문화가정 및 일반가정 아동 간에 차이가 없었으며, 또래관계의 경우에도 또래도움($F=.440, ns$), 또래갈등($F=1.269, ns$), 부정적 정서공유($F=.001, ns$)에서 다문화가정 및 일반가정 아동 간

에 차이가 없었다. <Table 4>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가족수입을 통제 한 후 공변량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다문화가정 및 일반가정 아동의 자기유능감($F=.094, ns$)에도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즉, 이러한 결과는 아동이 지각하는 부부갈등과 또래관계 및 자기유능감의 차이가 다문화가정이라는 특수한 환경에 의한다기보다는 아동의 사회경제적 상황에 의해 영향을 받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2. 다문화가정 아동 및 일반가정 아동이 지각하는 부부갈등과 또래관계가 아동의 자기유능감에 미치는 영향

회귀분석을 실시하기에 앞서 다중공선성의 문제를 파악하기 위해 분산 팽창 계수(Variance Inflation Factor: VIF)를 분석한 결과 VIF는 다문화가정 및 일반가정 아동의 경우에서

Table 5. Multiple Regression Predicting Self Competence among Multicultural and Korean Children

	Self Competence					
	Multicultural Children			Korean Children		
	B	SE	β	B	SE	β
Gender	.665	.263	.403*	.382	.110	.273**
Income	.611	.231	.427*	.150	.103	.107
Interparental Conflict						
Intensity	-.464	.218	-.344*	.015	.112	.013
Resolution	-.022	.170	-.023	-.143	.083	-.171
Triangulation	-.080	.137	-.083	.011	.071	.014
Peacemaker	.001	.120	.002	.122	.045	.217**
Perceived Threat	.188	.101	.332	-.046	.043	-.091
Peer Relationship						
Aid	0.71	.121	.088	.290	.071	.391***
Conflict	-.093	.140	-.094	-.207	.086	-.200*
Disclosing negative affect	.038	.117	.056	.145	.055	.248*
F	3.621**			12.613***		
R ²	.539			.618		

* $p < .05$, ** $p < .01$, *** $p < .001$

모두 10이하(1.09~2.16)의 값을 보여 다중공선성의 문제를 야기시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회귀분석을 위한 기본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였다. 다문화가정 아동이 지각하는 부부갈등과 또래관계가 아동의 자기유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중다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5>에 제시되어 있다

<Table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다문화가정 아동의 경우 성별, 가족수입, 아동이 지각한 부부갈등, 또래관계는 다문화가정 아동의 자기유능감의 분산을 54%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유능감에 있어 성별의 영향은 운동 영역을 제외한 영역에서 상반된 결과가 보고된다(Lee, 1994; Lee & Jeon, 1995)는 선행연구들을 토대로 성별이 자기유능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성별을 포함시켰으며, 가족수입의 경우에도 앞선 밝힌바와 같은 이유로 포함시켰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성별($\beta=.403$)과 가족수입($\beta=.427$)이 다문화가정 아동의 자기유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남아일 경우와 가족수입이 높은 경우 다문화가정 아동의 자기유능감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이 지각한 부부갈등의 경우에는 부부갈등의 강도($\beta=-.344$)가 다문화가정 아동의 자기유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또래관계의 경우에는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 없었다. 즉, 다문화가정 아동의 자기유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성별, 가족수입, 부부 간 갈등강도였다.

일반가정 아동의 경우 성별, 가족수입, 아동이 지각한 부부갈등, 또래관계는 일반가정 아동의 자기유능감의 분산을 62%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성별($\beta=.273$)이 일반가정 아동의 자기유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여아보다는 남아의 자기유능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이 지각한 부부갈등의 경우에는 부모 간 갈등에서 피스메이커 역할을 함($\beta=.217$)이 일반가정 아동의 자기유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또래관계의 경우에는 또래의 도움을 받음($\beta=.391$), 또래갈등($\beta=-.200$), 또래 간 부정적인 정서공유($\beta=.248$)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일반가정 아동의 자기유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성별, 부부 간 갈등에서 피스메이커 역할을 함, 또래의 도움을 받음, 또래갈등, 또래 간 부정적인 정서공유였다.

IV. 논의 및 제언

본 연구는 최근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다문화가정 아동과 일반가정 아동의 자기유능감 간의 차이를 살펴본 후, 일반가정 아동을 비교집단으로 하여 다문화가정의 아동이 지각한 부부갈등 관련변인들과 또래관계 관련변인들이 아동의 자기유능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다문화가정 및 일반가정 아동의 부부 간 갈등지각과 또래관계 및 자기유능감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독립표본 t검증을 실시한 결과, 부부갈등 강도, 갈등을 해결하지 못함, 부부 간 갈등에서 삼각관계에 있음, 또래갈등, 또래 간 부정적 정서공유에서 다문화가정 아동과 일반가정 아동간의 차이가 나타났다. 부부갈등의 강도, 갈등해결, 부부 간 갈등에서 삼각관계에 있음, 또래갈등의 경우에는 다문화가정 아동이 일반가정 아동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또래 간 부정적인 정서공유, 자기유능감의 경우에는 일반가정 아동이 다문화가정 아동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아동이 지각한 부부갈등, 또래관계 및 자기유능감은 사회경제적 상황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변인이므로 가족수입을 통제한 후 다변량공분산분석과 공변량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세 변인 모두에서 다문화가정 및 일반가정 아동 간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다문화가정 및 일반가정 아동이 지각하는 부모갈등과 또래관계가 아동의 자기유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중다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다문화가정 아동의 경우에는 성별, 가족수입, 부부 간 갈등강도가 자기유능감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일반가정 아동의 경우에는 성별, 부부 간 갈등에서 피스메이커 역할을 함, 또래의 도움을 받음, 또래갈등, 또래 간 부정적 정서공유가 자기유능감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논의를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부부갈등의 강도, 갈등을 해결하지 못함, 부부 간 갈등에서 삼각관계에 있음, 또래갈등의 경우에는 다문화가정 아동이 일반가정 아동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여성과 비교해 볼 때 결혼이민여성의 부부갈등 정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고 보고한 Kim(2006)의 연구를 지지하며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경우에는 의사소통과 한국문화 적응의 어려움, 낮은 경제·사회적 수준 등으로 인해 일반가정 어머니에 비해 부부갈등을 지각할 가능성이 높으며, 다문화가정 아동 또한 일반가정 아동에 비해 부부 간 갈등을 지각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일반가정 아동에 비해 다문화가정 아동은 또래갈등도 더 자주 경험하게 되는데 이는 앞서 살펴 본 연구들(Oh, 2005; Cho, 2006; Shin, 2006; Hong, 2007; Kim, 2007; Park & Lee, 2009)과 같은 맥락으로 다문화가정 아동은 일반가정 아동에 비해 또래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반면, 또래 간 부정적인 정서공유, 자기유능감의 경우에는 일반가정 아동이 다문화가정 아동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이와 같이 아동이 지각한 부부갈등과 또래관계 및 자기유능감에서 다문화가정 및 일반가정 아동 간에 차이가 나타났으나 가족수입을 통제한 후에는 다문화가정 아동과 일반가정 아

동 간의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아동이 지각한 부부갈등과 또래관계 및 자기유능감의 차이가 다문화가정이라는 특수한 환경에 의한다기보다는 아동의 사회경제적 상황에 의해 영향을 받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다문화가정 자녀는 여러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상당수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발달상황은 일반 가정 유아들과 비교해볼 때 매우 심각한 부적응이나 지체 상황에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한 경상북도 보육정보센터(2009)의 연구결과와 같은 맥락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다문화가정 학생들이 일반가정 학생들에 비해 학교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더 높고 교사와의 관계에 대해 더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한 Park and Lee(2009)의 연구와 경기도 지역 다문화청소년의 전반적인 만족도는 일반청소년보다 높다고 보고한 Jeon(2008)의 연구와도 그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다문화가정 아동이 일반가정 아동에 비해 모든 발달 영역에서 문제점을 가지는 것은 아님을 알 수 있고, 다문화가정 아동의 성장과 발달과정을 연구하는데 있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어려움들을 추론하는 것만으로 아동들의 발달에 문제가 있을 것이라 판단하는 것은 편협한 사고일 수 있다. 특히, 이러한 연구결과로 본 연구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중속변인인 아동의 자기유능감은 다문화가정이나 일반가정의 가족구성원의 차이와 같은 가족의 형태보다는 사회경제적 상황을 나타내는 가족수입에 더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다. 이는 저소득층 아동의 경제적 빈곤은 물리적·심리적 성장환경의 결핍을 초래하여 사회적 유능감의 결여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한 Park and Cho(2006)의 연구를 지지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둘째, 다문화가정 아동의 경우에는 성별, 가족수입, 부부 간 갈등강도가 자기유능감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문화가정 아동의 자기유능감은 남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일반가정 아동의 경우에도 남아의 자기유능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두 집단 간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가족수입의 경우에는 다문화가정 아동의 경우에서만 자기유능감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앞서 밝힌 바와 같이 다문화가정 아동은 일반가정 아동에 비해 사회경제적 상황에 더 영향을 받는다는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아동이 지각한 부부 간 갈등강도가 다문화가정 아동의 자기유능감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결과는 부부갈등의 심각성이 높을수록 아동의 자기유능감은 낮아진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부부 갈등에 자주 노출되고 부부사이의 관계를 심각한 것으로 지각할수록 아동의 정서적 안정을 저해하고 비효율적인 대처 반응을 초래한다는 Jung(2000)의 연구와 부부갈등이 아동의 자아개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연구들(Yoo, 2000; park, 2001)을 지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부부갈등을 높게 지각할수록 전반적 자아가치감과 행동유능감이 낮아지며 부부관계가 원만할수록 자녀의 자아개념 및 성격요인이 긍정적이라는 Park (2003)의 연구와도 맥락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으며, 부부 간 갈등강도가 아동의 자기유능감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는 부부갈등의 강도가 심할수록 아동의 문제행동과 부정적 발달이 증가한다는 연구들(Kim, 1994; No, 2001)을 지지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볼 때 다문화가정 아동의 유능감 형성에 부부사이의 상호작용 및 갈등에 대한 아동의 지각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 수 있다. 따라서 가족의 영향을 많이 받는 아동에게 있어 갈등이나 적개심 등의 부정적인 감정을 경험할 수 있는 부부갈등은 아동의 부정적인 인성과 자아상을 형성하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예측할 수 있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대부분 외국인 여성과 결혼한 한국남성으로 이루어진 다문화가정으로 이러한 경우에는 어머니의 의사소통상의 문제로 인해 부부간의 갈등 발생 시 대화로 해결하려는 태도가 일반가정에 비해 부족할 수 있으며, 부모의 신체적 폭력이나 물건을 부수는 등의 심각한 갈등상황을 더 많이 목격할 가능성이 높다. 이로 인해 다문화가정 아동은 일반가정 아동에 비해 부부갈등의 강도가 자기유능감에 중요한 설명변인이 되었으리라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도 다문화가정 아동과 일반가정 아동이 부부갈등 강도를 지각함에 있어 다문화가정 아동의 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이러한 결과를 뒷받침해주고 있다. 이는 한국여성과 비교해 볼 때 결혼이민여성의 부부갈등정도가 높게 나타났다고 한 Kim (2006)의 연구와 국제결혼 가정의 경우 경제수준과 교육수준이 낮은 경우 부부갈등은 높게 나타났다고 보고한 Lee(1999)의 연구와도 같은 맥락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또래관계에서는 다문화가정 아동의 자기유능감에 영향을 주는 유의미한 변인이 없었다. 이러한 결과는 다문화가정 아동은 일반가정 아동에 비해 또래관계보다는 부부갈등을 포함한 가족요인에 더 많은 영향을 받는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Seo(2004)의 연구에서도 가족구성원간의 심리적 유대감이나 결속력, 관심, 애정 등이 강하며 가족의 기능성이 잘 발휘되는 가정환경이 또래와 맺는 관계보다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더 많은 기여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와 같이 다문화가정 아동의 경우에는 자기유능감 향상에 있어 또래보다는 가족 특히 부모의 영향이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본 연구에서의 다문화가정은 결혼이민자 가정으로 구성된 점을 감안할 때 결혼이주 여성 어머니에게 한국어 교육과 더불어 자녀양육에 대한 중요성을 상기시켜 줄 수 있는 교육 또한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아울러 다문화가정 부모 모두에게 부부갈등을 포함하는 가족의 부정적 측면은 감소

시키는 반면 가족 구성원 간에 긍정적이고 정서적인 유대감을 형성하고 개방적이고 민주적인 가정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아동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성장하도록 도와 줄 수 있는 부모교육이 절실히 필요하다 할 것이다.

셋째, 일반가정 아동의 경우에는 성별, 부부 간 갈등에서 피스메이커 역할을 함, 또래의 도움을 받음, 또래갈등, 또래 간 부정적 정서공유가 자기유능감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가정 아동의 경우에도 다문화가정 아동의 경우와 동일하게 남아의 자기유능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부 간 갈등에서 피스메이커 역할을 함이 일반가정 아동의 자기유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부부 간 갈등에서 피스메이커 역할을 한다는 것은 부부갈등 상황에서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아동의 지각을 말하는 것으로, 부부갈등 상황을 효율적으로 대처할수록 아동의 자기유능감은 높아진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부부갈등의 하위변인 중 남아의 유능감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설명변인이 대처효율성이라 보고한 Park (2007)의 연구와 부부갈등 상황에 대한 아동의 대처능력이 효율적이지 못하다고 스스로 지각할수록 아동의 유능감은 낮아진다고 한 Park(2003)의 연구결과와 같은 맥락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부부갈등은 자녀의 사회적 유능성을 떨어뜨리며(Emery & O'Leary, 1984), 또래 간 갈등 및 갈등해결 전략에 영향을 미친다(Ballif-Spanvill et al., 2004).

본 연구에서도 일반가정 아동은 부부의 갈등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대처행동을 하게 되고, 이는 아동 스스로가 갈등에 효율적으로 반응한다고 지각하여 아동의 자기유능감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부부갈등상황에서 자녀가 갈등에 효율적으로 반응할 수 없다고 느끼면 부부갈등은 자녀에게 더 많은 스트레스를 주게 되는 반면, 갈등에 대처하는 능력이나 효능감에 대한 기대가 높으면 자녀는 희망적으로 생각하며 효율적인 대처행동을 하는 경향이 있다고 한 Davies and Cummings (1994)의 연구와 갈등상황에서 위협을 느끼고 대처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자녀는 불안을 느끼게 되며 부부갈등을 자녀 자신의 탓으로 돌리는 경우 분노, 수치, 무력감을 경험할 수 있다고 한 Kim(1994)의 연구와도 같은 맥락이라 할 수 있다. 이는 부부갈등에 있어 아동의 대처효율성의 중요성을 시사하는 것으로, 부부갈등 상황에서 아동과 부부 간의 원만한 상호작용으로 갈등이 해결 되었을 경우 아동의 자기유능감이나 자아탄력성 등 긍정적 성격특성의 형성과 발달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다. 나아가 아동이 부부갈등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적절하고 효율적인 대처방법을 사용함으로써 사회적 능력과 대처기술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아동 자신이 경험할 수 있는 갈등상황에서도 긍정적이고 적절한 대처방법을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일반가정 아동은 다문화가정 아동과는 달리 또래관계 변인이 자기유능감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아동기에서부터 청소년기까지의 발달 시기에는 또래관계 발달이 다른 시기보다 더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Kang, Chang, & Jung, 2000), 또래와의 경험은 아동중기를 전환점으로 아동에게 중요한 발달적 맥락을 구성한다고 밝힌 Lee(2011)의 연구와 같은 맥락이라 할 수 있다. 학령전기에 비해 학령기는 아동이 경험하는 사회관계의 영역이 넓어지는 시기로 이 시기 아동의 주요과제는 또래집단을 형성하고 우정을 만들어가는 것이다(No, 2011). 다시 말해, 학령기의 아동은 또래집단의 사회적 규범과 압력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가족이외에 접하게 되는 의미 있는 타인인 또래의 지지와 거부에 민감하게 반응한다고 해석 할 수 있다. 또한, 학교 친구로부터 높은 수준의 도움과 지지를 받는 아동은 학교에서 자신감과 안정감을 가지게 된다(Park & Sim, 2005; Seo, 2011)고 하였고 Bukowski and Hoza(1989)는 아동기에는 부모의 평가보다 또래들로부터의 평가가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또래집단으로부터 수용되고 인정받음으로써 부모가 제공할 수 없는 정서적 안정감과 긍정적인 자아개념을 형성하게 된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또래관련 변인인 또래의 도움을 받음, 또래갈등, 또래 간 부정적 정서공유가 자기유능감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아동에게 있어 또래관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 할 수 있었으며, 또래와의 역동적이고 지지적인 상호작용을 통한 긍정적 또래관계는 아동의 자기유능감을 향상시켜 그들의 사회화와 성숙을 도와주는 밑거름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그를 바탕으로 후속 연구를 위한 시사점을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서울·경기 지역과 대구·경북 지역의 초등학교 3, 4학년에 재학 중인 아동만을 연구대상으로 이루어졌으므로 본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하기에 다소 무리가 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다양한 지역의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한 시점에서 모든 변수들을 측정하여 조사하는 횡단적 연구방법을 사용하였으므로 후속연구에서는 종단적인 연구를 통해 각 발달 단계마다 부부갈등 및 또래관계가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의 다문화가정 아동은 한국남성과 외국인 여성과의 국제결혼으로 형성된 다문화가정 아동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후속 연구에서는 외국인 노동자 가정, 국제결혼 재혼가정, 난민가정, 새터민가정 등 다양한 형태의 다문화가정의 아동을 대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문화가정 아동과 일반가정 아동의 자기유능감의 차이를 살펴보고, 일반

가정 아동을 비교집단으로 하여 다문화가정 아동이 지각한 부부갈등 관련변인들과 또래관계 관련변인들이 아동의 자기유능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봄으로써 다문화가정 아동의 특성과 차이점을 파악하여 그들의 자기유능감 향상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REFERENCE

- 강문희·장연집·정정옥(2000). *아동정신건강*. 서울: 정민사.
- 경상북도보육정보센터(2009). *경북지역 다문화 가정 영유아 보육지원 프로그램 사업보고회 자료집*.
- 곽형식·박영애·박인전·양점도·윤종희·이소희·이항재·최영희(2000).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서울: 형설출판사.
- 김정란(2007). *다문화가정자녀의 자아정체감과 사회적 지지가 사회적응에 미치는 영향*. 국민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보건복지부(2005). *국제결혼 이주여성 실태조사 및 보건복지 지원정책방안보고서*. 서울: (구)보건복지부.
- 이지애(2007). *다문화 가정 아동과 일반가정 아동의 학교적응에 관한 비교연구-자아존중감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영달(2006). *다문화 가정 자녀교육 실태조사*. 교육부 정책연구과제 2006-이슈 3.
- 한국여성정책연구원(2008). *다민족·다문화사회의 이행을 위한 정책 패러다임 구축(III): 다문화 사회의 사회통합*. 다민족·다문화사회의 이행을 위한 정책 제 2차 세미나.
- 황매향·고홍월(2010). *초등교사를 위한 다문화상담 길잡이*. 파주: 학지사.
- 행정안전부(2010). *2010년 외국계주민 현황조사*. 서울: 행정안전부.
- An, H. R. & Yi, S. H.(2009). Academic achievement : Comparison of children of female marriage immigrant and general families.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30(1), 1-10.
- Anderson, S. A., Russel, C. S., & Schumm, W. R.(1983). Perceived marital quality and family life-cycle category. A further analysi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5(1), 127-139.
- Ballif-Spanvill, B., Clayton, C., Hendrix, S. B., & Hunsaker, M.(2004). Individual difference in the use of violent and peaceful behavior in peer conflict among children who have and have not witnessed interparental violence. *Journal of Emotional Abuse*,

- 4(2), 101-123.
- Bukowski, W., & Hoza, B.(1989). *Popularity and Friendship; Peer Relationships in child Development*. N.Y.; Wiley.
- Choi, Y. H.(2004). Differences of child's self-competence by temperament and mother's nurturing behavior-The conditional model-.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25(4), 17-32.
- Cummings, E. M., Ballard, M., & El-Sheikh, M.(1991). Responses of children and adolescents to interadult anger as a function of gender, age, and mode of expression.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37, 543-560.
- Cummings, E. M.(1994). *Children and marital and conflict: The Impact of family dispute and resolution*. N.Y.: Guilford.
- Davis, P. T. & Cummings, E. M.(1994). Marital Conflict and Child Adjustment: An emotional security hypothesis. *Psychological Bulletin*, 116(3), 387-411.
- Emery, R. E.(1982). Interpersonal conflict and the children of discord and divorce. *Psychological Bulletin*, 92, 310-330
- Emery, R. E., & O'Leary, K. D.(1984). Marital discord and child behavior problem in a nonclinic sample.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10, 11-24.
- Emery, R. E., & O'Leary, K. D.(1984). Marital discord and child behavior problems in a nonclinic sample.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12, 4121-420.
- Emery, R. E.(1989). Family violence. *American Psychologist*, 44, 321-328.
- Grych, J. H. Seid, M., & Fincham, F. D.(1992). Assessing marital conflict from the child's perspective; The children's perception of interparental conflict scale. *Child Development*, 63, 558-572.
- Grych, J. M. & Fincham, F. D.(1990). Interparental Conflict and Child Adjustment: Testing the Mediation Role of Appraisals in the Cognitive-Contextual Framework. *Child Development*, 71(6), 1648-1652.
- Harter, S.(1982). The perceived competence scale for children. *Child Development*, 53, 87-97.
- Harter, S.(1985). *Self-perception profile for children*. Denver, CO: University of Denver,
- Hong, Y. S.(2007). *A study on children's educational problem of multicultural family and it's implications*. Unpublished master thesis, Gwangju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Korea.
- Hwang, H. S.(2007). *The relationship between maternal child rearing attitudes and social competence and self competence in children with ADHD*. Unpublished master thesis, Sungkyunkwan University, Korea.
- Jeon, K. S.(2008). A comparative study on the living conditions of teenagers from multicultural family and normal family in Gyeonggi Prefecture -Based on Sschool life and family life- *The Korea Journal of Youth Counseling*, 16(1), 167-185.
- Jung, H. Y.(2000). *The Relationship between interparental conflict and parent- child relationship children perceived*. Unpublished master thesis, Sookmyung Women's University, Korea.
- Kim, O. N.(2006). *A study on factors affecting marital conflicts of immigrant women*.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The Catholic University, Korea.
- Kim, S. H.(1994). *Children's affective appraisals and cognitive appraisals of marital conflict*. Unpublished master thesis, Sookmyung Women's University, Korea.
- Kim, S. I.(2010). *Comparison of psychological features between children in multicultural families and children in general families regarding adaptation to school life*. Unpublished master thesis, Ehwa Womens University, Korea.
- Koo, H. J.(2009). A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nalysis of influence of language, cognitive, and social and emotional development on the children with aggression behavior at multi-cultural families in agricultural & fishing areas. *The Korean Journal of Early Childhood Special Education*, 9(3), 1-21.
- Kwon, Y. O.(1998). *Children's perception of marital conflict and behavior problem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Dong kuk University, Korea.
- Lee, H. K., Seo, H., & Kim, D. R.(2009).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young children in multi cultural family. *The Journal of Future Early Childhood Education*, 16(3), 1-21.
- Lee, H. J.(2011). *The effect child-perceived children's anger and family on peer relation*. Unpublished master thesis, Hanyang University, Korea.
- Lee, J. H.(1994). *Perceived competence of children and perception of responsibilities of parents based on age, sex, sociometric status*. Unpublished master thesis, Dong-a University, Korea.
- Lee, J. L.(1994). *The analysis of the causal model of child-*

- ren's self - perceived competence and related variables. *Journal of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32(4), 193-208
- Lee, K. S.(1999). *A study on causes of couple conflict within internationally-married family : focused on Korean and Japanese families*. Unpublished master thesis, Soon chun hyang University, Korea.
- Lee, N. K.(1995). *The causal relationships among psychological process of home environment, parenting attitude and competence perceived by children*.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Catholic University of Daegu, Korea.
- Lee, Y. C.(2009). *Peer Relationship and School Life Adjustment of Gifted Children in Regular and Gifted Classes*. Unpublished master thesis, Konkuk University, Korea.
- Lee, Y. H.(2009). *A study on effect of attachment, self-esteem and social support to raise multicultural children's adaption for school : Focused on comparison with children in general families*. Unpublished master thesis, Korea University, Korea.
- Lee, Y. J.(2007). *A study on the factors influencing psychosocial adjustments of children of multi-culture families*. Unpublished master thesis, Kongju University, Korea.
- Long, N., Forehand, R., Fauber, R., & Brody, G. H.(1987). Self-perceived and independently-perceived competence of young adolescents as a function of parental marital conflict and recent divorce.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15, 15-27.
- Nam, Y. J.(2009). *A comparative study on the self-concept and depression of children from multi-culture and general familie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Chonnam National University, Korea.
- No, E. S.(2011). *The mediating effects of ego-resilience on the relationships between children's perception of parenting attitudes and peer relationship*. Unpublished master thesis, Sookmyung Women's University, Korea.
- No, S. Y.(2001). *The effects of interparental conflict on the child's psychological maladjustment*. Unpublished master thesis, Gwangju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Korea.
- Oh, S. B.(2010). An exploratory study on multi-cultural education policy : Its Challenges and Future Direction. *The Journal of Korean Educational Idea*, 24(2), 149-170.
- Park, E. J & Shim, W. Y.(2005). A study on the parent-child relationship, peer relationship, teacher-child relationship, and school adjustment of elementary school children. *The Korean Journal of Elementary Counseling*, 4(1), 285-310.
- Park, G. Y. & Jo, H. S.(2006). The effects of sociability promotion activities for young children from low-income class on their social competence. *Journal of Early Children Education*, 15(2), 163-176.
- Park, H. Y.(2007). *The Effect of mother's parenting styles, interparental conflict perceived by child on Psychological Adaptation*. Unpublished master thesis, Ewha Womens University, Korea.
- Park, J. A.(2003). *The relationships between children's perception of interparental conflict, children's anxiety and self-perceived competence*. Unpublished master thesis, Youngnam University, Korea.
- Park, K. J. & Kim, S. Y.(2007). Social and emotional development of preschoolers: Children of interracial families in rural areas.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28(5), 91-108.
- Park, S. C.(2005). *The Comparison between Scientifically Gifted Children and Ordinary Children in Peer Relationships and Self-Efficacy*. Unpublished master thesis, Chang-won National University, Korea.
- Park, Y. K. & Lee, S. Y.(2009). Survey on the school lives of the students of multicultural families: Inter-group differences and intragroup diversities. *Theory and Reserch in Citizenship Education*, 41(1), 41-71.
- Park, Y. L.(2001). *A study on relationship among child's self-esteem, attachment and perception of inter-parental conflict*. Unpublished master thesis, Sogang University, Korea.
- Parker, J. G. & Asher, S, R.(1987). Friendship and friendship quality in middle childhood ; Links with peer group acceptance and feelings of loneliness and social dissatisfaction. *Development Psychology*, 29(4), 611-621.
- Seo, K. Y.(2011). *A study of the development of a bullying prevention program focused on peer support for elementary Sschool students in higher grade*. Unpublished master thesis, Korean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Korea.
- Seo, Mi. J. & Kim, K. Y.(2004). The effects of personal and environmental variables on children's percei-

- ved competence.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21(1), 45-57.
- Seo, Y. M.(2004). *The relation among children's perceived family functioning, peer relation and self-esteem*. Unpublished master thesis, Seoul Women University, Korea
- Shin, H. J.(2007). *A study on factors affect the ego-identity of children from multi-cultural families*. Unpublished master thesis, Ewha Womens University, Korea.
- Vandewater, E. A. & Lansford, J.(1998). Influences of family structure and parental conflict on children's well-being. *Family Relations*, 47(4), 323-330.
- Westerman, M. A. & La Luz, E. J.(1995). Marital adjustment and children's academic achievement. *Merrill-Palmer Quarterly*, 41, 453-470.
- Yang, S. M.(2007). Variables impacting the school life adjustment and family life happiness of the women marriage migrants family's children in rural. *The Korean Journal of Woman Psychology*, 12(4), 559-576.
- Yoo, B. N.(2010). *A comparison of self-esteem and health behavior of children from multicultural and homogeneous families*. Unpublished master thesis, Ewha Womens University, Korea.
- Yoo, S. H.(2000). *Connection between children's perception and self-consciousness by parents' trouble*. Unpublished master thesis, Sookmyung Women's University, Korea.
- Yoo, S. Y.(1999). *The Relationship between Perception of Friendship and School Adjustment in Childhood*. Unpublished master thesis, Sookmyung Women's University, Korea.

- 접수일 : 2011년 10월 31일
- 심사일 : 2011년 12월 13일
- 게재확정일 : 2012년 01월 10일